

주간 테러동향

Weekly Terrorism Trends

'20. 3. 20(금)

지역별 테러 동향

Weekly Terrorism Trends

유럽

- 터키, 자국내 구금중인 ISIS 포로 송환
 - 3.13 터키는 자국내 구금중인 ISIS 포로 2명을 각각 본국으로 송환했으며, 현재 잔류중인 총 ISIS 포로(약420여명)를 본국으로 계속 추방 예정
 - * 작년 11월부터 ISIS 포로를 각국으로 송환하고 있으나, 일부 유럽에서는 ISIS 가담자에 대한 시민권을 박탈하여 자국민이 아니라는 이유로 송환 거부 중
- 佛, 파리테러 용의자 20명에 대한 재판 예정
 - 3.16 佛 법원은 파리 테러사건('15.11.13/사망 132)에 대한 5년간의 조사가 마무리되었다고 판단하고, 테러사건 주범 및 지원혐의 용의자 20명에 대한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발표
- 스웨덴, 대테러戰 수행을 위해 서아프리카 말리 파병 결정
 - 3.16 스웨덴 외교부 장관은 서아프리카 말리의 평화정착과 ISIS 세력의 유럽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프랑스 주도의 대테러 격퇴戰 (바르칸 작전)에 동참, 150명 규모의 부대 파병을 결정했다고 발표
 - * 프랑스는 사헬지역에 '13년부터 5,100여명을 파병해 대테러戰을 수행 중

미주

- 美 연방법원, ISIS 자금 지원 혐의자에게 징역 13년 선고
 - 3.13 美 연방법원은 지난 '17년 ISIS 가담을 시도하고, '18년 파키스탄·터키 등을 우회하여 ISIS에 자금(약 1.8억원)을 지원한 여성에게 13년형 선고
- 미군, 올해 25차례 소말리아 공습
 - VOA뉴스가 미군이 올해 소말리아내 알카에다 연계세력인 알샤바브에 25차례 공습을 가했다고 보도(3.11), 美 아프리카사령부(AFRICOM)는 동공습은 '알샤바브 세력 억제를 위한 예방적 조치'였다고 발표
 - * 미군은 소말리아에서 '19년 63회, '18년 47회 공습 실시

○ 美 국무부, ISIS 새 지도자 테러리스트 명단 등재

- 3.18 美 국무부는 ISIS의 새 지도자 「아미르 모하메드 압둘 라흐만 알마울리」를 테러리즘 블랙리스트에 포함시켰으며, 그를 생포하기 위한 정보에 500만 달러(약62억원)의 포상금을 발표
 - * 美 국무부는 작년 11월 「아부 이브라힘 알하심 알 쿠라이시」를 새 지도자라고 발표했으나,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정보였음을 인정 후 이번에 본명을 공식 확인

아 · 태평양

○ 대법원, 美 백악관 홈페이지에 「오바마」 테러 협박글 올린 30대 무죄 확정

- 3.12 대법원은 '15.7월 美 백악관 홈페이지內 ‘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테러선언’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협박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대해 압수수색영장 집행과정의 위법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확정
 - * 1심에서는 혐의가 인정되어 1년6월의 징역이 선고되었으나, 2심·3심에서는 압수수색영장 범위 밖의 수색·복사 등으로 증거를 수집하였다는 이유로 무죄 선고

○ 금융정보분석원(FIU), 「특정금융정보법」 하위법령 마련 착수

- 지난 5일 암호화폐 거래소 등에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방지 의무를 부여한 「특정금융정보법」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으며, 금융정보분석원은 가상 자산사업자의 범위와 신고요건·절차 등 법률 시행에 필요한 세부 개정 작업을 3월말 착수 예정
 - * FIU는 경희대 산학협력단과 국제기준 이행방안 정책연구용역을 진행중이며, 연구용역결과를 토대로 법령 개정 추진하겠다는 입장

중동 · 아프리카

○ ISIS, 조직원에게 ‘코로나19’ 발병지역 「여행 금지령」 지시

- 3.14 중동언론은 ISIS가 조직內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인터넷 소식지 알나바(AlNaba) 최신희를 통해 전세계 조직원들에게 “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발병지에 가지 말고, 해당지역에서 감염된 자는 현재 있는 곳에서 나오지 말 것”을 지시했다고 보도
 - * ISIS는 세력이 급격히 위축되었지만 이라크·시리아 등지에서 여전히 활동 중

터키 이스탄불 이스티크랄街 자살폭탄 테러

- '16.3.19 터키 이스탄불 번화가 이스티크랄街*에서 자살폭탄 테러가 발생하여 관광객 4명이 사망하고, 39명이 부상
 - * 호텔·식당·상점·외국공관 등이 밀집되어 있는 이스탄불 최대 번화가
 - 테러범은 관광객이 운집된 이스티크랄街 중심부에서 폭탄을 터트리려했으나, 시가지 경찰 검문을 의식하여 중심부 진입前 자폭
- 터키 당국은 '쿠르드자유매파(TAK)'와 'ISIS'를 배후로 지목하고 수사에 착수, 테러범이 가지안테프 출신의 ISIS 대원이라고 발표
- 당시 터키는 '쿠르드자유매파'의 연쇄 자폭테러*와 이스티크랄街 자폭테러 여파로 관광산업**에 막대한 피해 발생
 - * 공군총사령부 차량 자폭테러('16.2.19), 크즐라이 광장 버스정류장 자폭테러('16.3.13)
 - ** 터키 관광산업은 한해 약 40조 규모의 시장으로 GDP의 약 4%를 차지
 - 이러한 터키 정세 불안은 미국 등 일부 국가의 터키여행 자제 및 주재원 가족 철수 권고로 이어져 관광산업 악재로 작용
 - 실제 터키의 관광 성수기 호텔 예약률은 전년 대비 40% 급감하고, 관광지 상가 매출도 50% 이상 감소

< 쿠르드자유매파(Teyrebazen Azadiya Kurdistan) >

- (결성) 쿠르드노동자당(PKK)이 터키 정부와 타협할 여지가 있다는데 불만을 제기한 일부 당원들이 독립하여 '04.6월 쿠르드자유매파를 결성
 - * 세부 규모 및 지도부 미상(조직원은 수 십 여명으로 추정)
- (조직이념) 쿠르드 민족주의·분리주의
- (활동수법) 터키 전역 위기고조를 위한 폭탄공격이 주류
- (PKK 관계) TAK와 PKK의 관계는 정확히 알려진 바는 없으나, 일부 전문가들은 TAK가 PKK의 지원을 받고 있으며, PKK가 TAK에 대한 일부 행동을 통제할 수 있다고 주장(반면, PKK는 TAK과의 연계성 부인)